



연금보험시장 부진의 원인과 과제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험업권 연금보험의 신규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보험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연금보험 신규 판매 급감으로 인하여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산업의 연금부분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최근 보험산업 연금부분의 축소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의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공급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저축성보험은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 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이 떨어짐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어 연금보험의 금리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장수위험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본 부담이 발생함
 - 또한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수익성이 보장성보험에 비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연금보험보다는 중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함

- 보험회사는 전략적 리스크 관리, 투자형 상품의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분산, 리스크 경감 방안 등을 통해 연금보험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연금보험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저보증이율 인하와 같은 전략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변액연금 등의 투자형 상품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리스크 간 분산효과를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 또한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상품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 공적연금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보험의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우리나라 인구는 기대수명 증가 및 출산율 하락에 따라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후소득보장 니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가구구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유족을 위한 사망보장 니즈가 축소되고 본인의 노후소득보장 및 건강보장 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연금보험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신규 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상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생명보험회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과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일반연금, 그리고 투자형 연금상품인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만을 판매하고 있음
 - 보험업권에서 판매 중인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최근 4년간(2014~2018년) 대폭(6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에 변액연금 초회보험료가 49.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의 일반연금이 75.2% 감소하여 전체 연금보험 판매는 크게 감소함
 - 한편, 생명보험 개인연금은 동 기간 소폭 증가하고 손해보험 개인연금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연금보험 중 비중이 2% 미만으로 매우 낮음

〈표 1〉 연금보험 종목별 초회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2018년 증가율	2018년 비중
생명 보험	일반연금	66,323	61,791	33,994	22,330	16,436	-75.2	74.3
	개인연금	303	398	486	435	340	12.5	1.5
	변액연금	3,531	3,209	3,903	7,096	5,273	49.4	23.8
손해 보험	개인연금	203	192	102	91	84	-58.8	0.4
계		70,359	65,590	38,486	29,952	22,133	-68.5	100.0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연금보험 신규 판매 급감으로 인하여 수입보험료 또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산업의 연금부문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중 생명보험 일반연금이 가장 크게 감소(-30.5%)했으며, 초회보험료가 증가한 변액 연금의 경우에도 수입보험료는 21.5% 감소함
 - 이는 연금보험 신규 판매 감소로 인한 초회보험료 축소와 함께 기존 계약의 해지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연금보험 수입보험료의 지속적인 감소는 보험산업 연금부문의 전반적인 축소를 의미함

〈표 2〉 연금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2018년 증가율	2018년 비중
생명 보험	일반연금	191,708	198,516	167,401	151,090	133,142	-30.5	46.7
	개인연금	47,351	47,350	46,074	44,491	42,910	-9.4	15.1
	변액연금	86,366	80,712	74,200	73,527	67,793	-21.5	23.8
손해 보험	개인연금	41,090	41,080	40,989	40,978	40,971	-0.3	14.4
계		366,515	367,658	328,664	310,087	284,816	-22.3	100.0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연금보험 공급 감소의 원인



- 최근 보험산업 연금부문의 축소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의 리스크 확대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공급 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연금보험을 포함한 장기저축성보험은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 17에서 매출로 인식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자본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이 떨어짐
 - IFRS 17하에서 보험상품의 저축부분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매출규모 확대 없이 부채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IFRS 17은 부채 평가시점의 가정을 이용하여 부채를 시가평가하기 때문에 확정금리형 또는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상품 비중이 높을 경우 자본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IFRS 17에 대비하여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보험 상품 비중을 축소하고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향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리스크 측정 방식이 정교화되어 연금보험의 금리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장수위험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연금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본 부담이 발생함
 - K-ICS가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최대 잔존만기를 제한하지 않고 실제 잔존만기를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만기가 긴 연금보험의 부채 듀레이션이 확대되고 금리리스크 요구자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이 저축보험료이기 때문에 금리리스크 노출 정도가 보장성보험에 비해 큼
 - K-ICS에서는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자산집중위험이 신규로 추가되며, 연금보험은 장수위험을 가진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구자본 부담이 발생함
 - 유럽에서도 Solvency II 시행 이후 보험회사들은 금리리스크가 큰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 공급을 줄이고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 및 하이브리드형 보장성상품을 강화하고 있으며¹⁾, 연금부채를 타회사에 이전하거나 연금사업을 철수하는 사례²⁾도 나타남
- 또한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저축성보험의 수익성이 보장성보험에 비해 낮아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연금보험보다는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강화함

1) Milliman(2016), "Capital efficient products in the European life insurance market"

2) 2016년 AEGON은 요구자본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국 연금사업의 2/3를 Rothesay생명에 매각한 바 있음

-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으로 인한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계약자에게 약속한 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상품의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음
- 보장성보험의 경우 투자수익 이외에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대가인 위험보험료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함
- 이에 따라 최근 보험회사는 연금보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연금전환 종신보험 등의 하이브리드형 보장성보험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3. 향후 과제



- 보험회사가 연금보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저보증이율 인하와 같은 전략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변액 연금 등의 투자형 상품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연금상품의 금리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확정형 상품의 판매를 축소하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투자형 연금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시장 환경이 좋을 경우 공시이율에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연계형 연금상품과 같은 하이브리드형 연금보험 개발이 필요할 것임
- 지급여력제도에서는 리스크 간 분산효과를 통해 요구자본을 경감해 주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은 리스크가 상반되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경우 리스크 경감 효과를 통해 요구자본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유럽 주요 보험그룹의 2017년 재무건전성 공시(SFCR) 결과에 따르면 Solvency II하에서 리스크 분산 효과를 통해 요구자본이 20~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의 보장 니즈가 노후소득과 함께 노후건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상품과 건강보험상품을 융합하여 판매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재보험을 활용하여 비중이 높은 보험부채를 출재하고 비중이 낮은 보험부채를 수재하는 방식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금융당국 또한 보험회사가 원활하게 연금보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상품경쟁을 통해 소비자에 유리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하고 경쟁을 통해 연금시장을 효율화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노후소득 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재보험 활용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보험과 동일한 위험전가 효과를 가지는 보험연계증권(ILS) 거래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검토가 요구됨
- 한편 저소득층과 같이 노후소득보장 니즈가 상대적으로 큰 계층의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kiri**